

승리절을 맞이하여 승리자를 알아본다

승리절이란 하나님이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권을 이긴 날(1980.10.15)을 해마다 기념하고 승리자 구세주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가장 절기 중 하나이다.

마귀한테 패한 보통 하나님이 6천 년 만에 승리자 하나님으로 출현

하나님은 무엇이고 승리자 구세주 하나님은 무엇인가?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신은 마귀한테 지는 무능한 하나님이다. 불교를 믿든 기독교·천주교를 믿든 심지어 민족 종교 등 어떤 종교를 믿든지 상관 없이 부처님이나 하나님이나 한울님 등으로 불리워지는 각 종파에서 내세우는 최고 신이 사망권을 쥐고 있는 마귀를 이기지 못하는 무능한 보통 하나님이 지니지 않는다. 불교에서 행하는 천도식이나 기독교에서 행하는 추도식은 마치 죽은 사람들이 극락 가고 천국 가는 것처럼 비추어지는데, 사실은 내세에 극락도 없고 천국도 없다. 왜냐면 지금으로부터 6천 년 전에 하나님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패하는 순간 천국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뜻 중의 뜻이 무너진 에덴동산 천국 회복이라고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천국을 다시 건설할 주인공이 되는 구세주를 키우는 데 최소한 6천 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신 것이다. 그것이 창세기에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주께는 하루가 천 년 같더라는 말씀과 짝을 맞추면 단이 나온다. 이렇게 구세주는 4천 년 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6천 년 만에 나오게 되어 있다.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권을 이기고 무너진 에덴동산 천국을 회복하신 분이 곧 승리자 하나님이다.



이슬성신은 승리자 하나님의 온전한 분신체이며 말세에 부여주시는 피와 불과 연기 기둥

가지 않은 딸이 임신한 것을 알고 외동딸(고명딸)을 구할 방법을 강구했다. 왜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관습이 간통을 저지르든지 강간을 당하든지 간에 이런 죄를 범한 자는 군중들이 돌을 던져 죽였다. 그리하여 유대 나라의 관원이었던 마리아의 아버지는 자신의 벼슬도 떨어지지 않고 딸도 죽지 않는 방책으로 그의 딸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기발한 생각에 이르러 되었다.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마찬가지로 당연히 자신과 대등한 신분에 있는 집안의 자제분에게 딸을 시집보내는 것이 일상적인 관례인데, 그럴 수 없었다. 사위 될 사람이 지시 있는 고위층 자식이면, '내 딸이 성령으로 잉태한 상태니까 그것을 고려해서 결혼식을 올린 후에 신랑, 신부가 합방하지 말고 아이가 출산할 때까지 기다려라.'는 장인 측의 어처구니 없는 제안을 받아줄 리가 없다. 그래서 마리아의 아버지는 배우지도 못한 목수 요셉을 설득하여 임신한 딸을 시집보낼 수 있었다. 지체 높으신 장인어른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었던 목수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집에서 살았지만 두려워서 마리아의 얼굴조차 감히 쳐다보지 못했다고 한다.

마리아를 성녀로 여겼던 목수 요셉이 예수 탄생 이후에 마리아와 동침하여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등 아들 넷과 딸 둘을 낳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미스터리한 사건이다. 아마도 목수 요셉의 욕망은 예수의 모습이 흡사 로마인과 빼달았다는 것을 안 이후부터 생겨난 것 같다. 이스라엘 민족은 섹츄어로 황인종이었고 로마인들은 아랫 족속의 백인종(아리아계 민족)이었기에 금방 분별할 수 있었다. 외경에는 어릴 적 예수가 진흙으로 참새 12마리를 만들어 날아가게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고, 또 어린 예수는 자

신을 조롱하는 또래의 아이들을 향하여 "이 죽을 놈의 자식!"이라고 저주하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그 죽은 아이의 부모가 아이를 안고 예수의 부모를 찾아와서 아이를 살려내라고 호소하며 귀찮게 구니까, 예수 가족은 밤중에 몰래 이시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이렇게 외경이 전하는 예수의 유년기에, 예수가 히브리인의 어린 아이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조롱을 당했다는 것은 그의 생김새부터 이스라엘 동족의 모습이 아니고 로마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그리고 나중에 30대 랍비 예수가 로마 사람 빌라도 총독 앞에서 재판 받을 때, 이미 빌라도는 예수의 처남(마 27:19) 아리마대 요셉으로부터 무죄 석방을 부탁하는 금덩어리 뇌물을 받은 상태에 있었고 거기에서 실제로 예수 얼굴을 마주하고서 내심 '항간에서 나돌고 있는 로마병정의 사생아 예수라는 소문이 틀림없구나!'라고 생각하고 동족 로마인의 피가 흐르는 예수를 사형선고할 수 없었고 즉시 무죄 선고했다(마태복음 27장 24절). 영국 BBC 기자가 쓴 베스트셀러 '성혈과 성배' 책에 예수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 가족과 함께 로마병정의 호위 속에 불란스로 망명했고 거기서 84살에 죽은 예수의 시체가 문헌 무덤까지 사진을 찍어 공개했다. 또 영국 법정에 예수의 후손과 예수를 조상으로 하는 족보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여 영국의 기독교와 천주교 단체들이 반발하여 내걸은 사실관계확인소송에서 '성혈과 성배' 책 내용이 모두 사실에 근거한다라는 법정 판결로 승소했다.

성령 잉태는 마귀한테 패한 보통 하나님이 승리자 하나님이 되기 위한 비책

하나님과 아담과 해와 하나님, 이렇게

위(位)로는 '삼(三)' 즉 세 분 하나님이요 체(體)로는 '일(一)' 즉 한 몸으로 이루어져 있었던 모습을 일컬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야 에덴동산이 성립하고 천국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즉 삼위일체 하나님 자체가 곧 에덴동산이요 천국 자체이다. 지금으로부터 6천 년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마귀한테 패함으로 말미암아 삼위(三位) 가운데 아담 하나님과 해와 하나님 즉 이위(二位)가 마귀에게 사로잡혀 인간 죄인이 되는 남자와 여자로 전락되었다. 그리하여 이위를 마귀한테 내어준 삼위일체 하나님은 유명무실하고 무능한 보통 하나님이 되었지만, 천만다행으로 마귀한테 사로잡히지 않고 도망칠 수 있었기에, 마귀한테 사로잡혀 인간으로 변한 '마귀' 속에 갇힌 하나님과 다르게 분신 능력을 행할 수 있었다.

마귀한테 사로잡히지 않은 보통 하나님이 비록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잃었지만 불완전한 분신 능력이나 행할 수 있었기에, 성모님을 통한 성령 잉태가 가능했고 태초의 하나님이 조희성님의 이름으로 탄생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조(曹)씨 가문을 택한 것은 불경에 생미륵 불이 쪼세 성으로 나온다는 예언을 이루고 자한 의도이며 또한 '사람이 하나님이다'라는 인내천 사상을 표명하는 천도교 교인이었던 외할아버지가 외손자의 이름을 음력 6월 28일 새벽 4시에 태어났다고 해서 '새벽별'이라는 이름이 되는 '희성(熙星)'으로 작명된 것도 하나님의 주장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분신 능력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단대에서 동정녀의 성령 잉태에 의한 그리스도 출현을 운운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아침이 압박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여 이겼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침에게 이스라엘(히브리어인데 번역하면 승리자)이라는 새 이름을 선물로 주었다. 아침은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이삭의 둘째 아들이다. 쌍둥이에서가 아침의 형으로서 먼저 나왔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짝이 맞는 이치로 승리자 구세주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출현하여 인류를 구원하실 주인공도 성령 잉태에 의한 둘째 아들로 태어난 것이다. 호세아 14장 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승리자)에게 이슬과 같이 되겠다고 했다. 그리고 이슬을 내리는 자가 백합화(구세주를 상징)와 같다고 한 것이다. 여기 언급된 이슬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회복된 전지전능한 승리자 구세주 하나님의 온전한 분신체이기에 비로소 인류를 구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268>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생활해야"

여러분들, 나를 못 이겨가지고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매일 나한테 지는 사람은 나라는 마귀가 언젠가는 기회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이기는 생활을 하려면 바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움직이는 버릇을 가져야 마귀한테 끌려가지 않게 되

고 마귀한테 유혹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제멋대로 하는 버릇이 있으면 언젠가는 마귀가 죽음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의 주장하심을 따라 생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삶

올바른 전화 이용법

전화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통화 수단이지만, 너무 지나치게 사용하는 통화수단이기도 하다. 수시로 울려대는 전화를 받느라 업무나 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 전화벨이 울리면 업무에 집중하다가도 전화를 받아야 되고 사무실을 나가다가도 다시 돌아와 전화를 받아야 한다.

그러다 보면 전화 받는 일로 하던 일이 중단되고 전화한 사람의 용건을 처리하고 나면, 다시 하던 일에 집중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정작 처리해야 하는 중요한 업무가 방해를 받는다.

물론 업무상 꼭 받아야 하는 중요한 전화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화는 업무를 방해하고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불청객이다. 따라서 전화를 할 때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최대한 준비를 하여 상대방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잘못된 전화 이용법은 삼가는 것이 좋겠다.

- ① 전화를 거는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② 준비가 불충분한 경우. ③ 상대방의 전화번호도 모르면서 전화를 걸겠다고 전화번호를 찾느라 시간을 보내는 경우. ④ 필요한 자료를 구비하지 않은 채 전화를 거는 경우. ⑤ 미리 용건을 메모하지 않고 통화하는 경우. ⑥ 통화 의도를 밝히지 않고 전화하는 경우. ⑦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거나 질문도 하지 않고 오직 혼자서 일방적으로 이야기 하는 경우. ⑧ 통화 내용을 메모하지 않는 경우. ⑨ 구체적인 합

의를 보지 못한 경우.

대부분의 전화는 사고 목적을 위해, 업무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잘난 척하기 위해, 화를 풀기 위해, 수다를 떨기 위해, 형식상, 따분해서 등의 이유로 전화를 거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요즘은 휴대폰이 없는 사람이 없다. 고등학생, 중학생뿐만 아니라 심지어 초등학생들까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휴대전화의 보급에 비하여 사용 예절에 관한 교육이 너무나 미흡하다. 학교 수업시간에도 휴대전화가 울리고, 재판장에서도 휴대전화가 울리고, 공연장에서도, 회의 시간에도, 심지어 예배시간에도 전화벨이 울린다. 이는 휴대전화의 사용 예절을 모르는 무지에서 나오는 행동들이다.

모두가 집중하는 시간에 빠리리~ 전화벨이 울리는 것도 문제지만 천연덕스럽게 전화를 받는 행위는 더욱 기가 막힌다. 그래서 공공장소에서는 전원을 끄든지 진동으로 하여, 꼭 받아야 하는 전화가 오면 밖으로 살짝 나와서 받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불가피할 경우에만 그렇게 해야 한다.

생활에 도움이 되고 업무에 도움이 되어야 할 전화, 시간 절약의 수단으로 기여해야 할 전화가 시간을 낭비하고 여러 사람을 불쾌하게 하는 밑상으로 변한다면 그것은 필요악의 존재로 현대 사회의 또 하나의 골칫거리로 전락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전화의 올바른 이용을 위하여 잘못된 태도를 고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구세주 5대 공약

- 1. 세계 공산주의를 없애버리게 하겠다.
- 2. 우리나라로 태풍이 못 불어오게 하겠다.
- 3. 여름 장마를 못 지게 하겠다.
- 4.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풍년들게 하겠다.
- 5. 한반도에서 전쟁이 못 일어나게 하겠다.

오늘날 극심한 기후 변화로 전세계가 가뭄과 홍수 그리고 산불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구온난화에 의한 천재지변이 선진국이나 후진국을 가리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우리나라는 '구세주'의 5대 공약의 덕택으로 비교적 피해가 적고 안전하다. 감사해야 할 일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구세주 5대 공약에 지

진을 못 일어나게 하겠다'라는 것이 빠져 있음을 유념하고 경각심을 가져야겠다. 물론 주님이 설교 시간에 말씀하기를, "한국에 구세주가 있기에 지진이 일어나도 많은 사람이 죽을 정도로 큰 지진이 일어나지 않죠"라고 했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다. 구세주의 팔을 꺾으려던 섬나라의 백성들은 성난 파도에 수장될 뻔했다.*

